

한국후지필름 “올 업계 3위 도약” 선언

고감도·고화질 디카 신제품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한국후지필름은 유창호 대표이사는 지난 9월 29일 서울 필동 ‘한국의 집’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 기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업계 3위를 반드시 탈환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10년 매출 5,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토털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국후지필름은 이날 ‘한국의 맛을 고감도 첨단 디지털 카메라에 담는다’라는 주제로 준 전문가용 렌즈 일체형 카메라 ‘파인픽스S’ 시리즈와 콤팩트 카메라로는 최초로 900만 화소를 구현하는 ‘파인픽스 E900’ 등 신제품 3종을 선보였다.

○○○ 취재 | 박지연 기자 |



디지털이미징 전문기업 한국후지필름(대표·유창호)이 준 전문가용 렌즈 일체형 카메라 ‘파인픽스 S’ 시리즈와 900만 화소대 콤팩트형 디지털카메라 ‘파인픽스 E900’을 출시하면서 하반기 국내 디지털카메라 시장몰이에 본격 나섰다. 한국후지필름은 지난 9월 29일 충무로에 위치한 전통가옥 ‘한국의 집’에서 『한국의 맛을 고감도 첨단 디지털카메라에 담는다』는 내용으로 사진관련 언론매체 기자 3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준 전문가용 렌즈일체형 디지털카메라 ‘파인픽스 S9500/S5600’ 2종과 콤팩트형 디지털카메라 ‘파인픽스 E900’ 등 신제품 3종 발표를 겸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창호 사장은 “후지필름은 최고 품질의 디지털카메라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 디지털카메라 시장 점유율 3위 달성이라는 목표아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인 결과, 올해 초 국내 디지털카메라 전체시장에서 13~15%의 점유율을 달성해 초기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2010년까지 필름, 인화지, 현상기, 디지털카메라 등 촬영에서 인화까지 디지털토털솔루션을 제공해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거대기



▶ ‘한국의 맛을 고감도·고화질 첨단 디지털카메라에 담는다’는 컨셉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한국의 집 전통마당에서 한국전통춤을 추는 무희들의 모습을 후지필름의 신제품 3종으로 직접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호 사장은 “이번 신제품 출시는 후지필름이 70여 년간 쌓아온 필름 제조 기술의 노하우를 디지털 분야에 적용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해 온 결과”라며 “파인픽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후지필름은 지난 9월 29일 충무로에 위치한 전통가옥 '한국의 집'에서 신제품 3종에 대한 제품발표 및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유창호 대표



▶한국후지필름이 선보인 신제품. 준 전문가용 렌즈 일체형 카메라 '파인픽스 S' 시리즈와 900만 화소대 콤팩트형 디지털카메라 '파인픽스 E900'을 선보였다.

로 고감도, 고화질의 이미징&인포메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 이미징 리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제품발표회와 관련하여 파인픽스 마케팅실 고승훈 실장은 '디지털카메라 출시 경향 및 신제품 소개, 향후 한국후지필름(주)의 마케팅 방향'이란 주제로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즉, 최근 출시되는 디지털카메라 경향에 대해, 600만 화소에서 800만 화소대의 고화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LCD창 장착, 광학에서 망원까지 줌 영역의 확대, 배터리의 수명 연장, 손 떨림 방지 기능 탑재 등의 특징을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카메라 수요는 신규 구매보다 재구매나 기기변경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소비자들은 디지털카메라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한 강한 요구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디지털 영업부문을 맡고 있는 박기형 이사는 "과거 한국사진시장에 감도 200의 자동카메라용 필름을 소개해 사진계의 일대 변혁을 주도했던 후지필름은 그러한 고감도

라는 컨셉을 디지털이미징과 마케팅에도 도입했다"며 "기존 아날로그 사진시장에서 후지필름이 보여주었던 고감도 · 고화질을 주도해 나갔던 모습을 네오 DSLR 카메라 등의 신제품에 담아 디지털카메라 시대에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마케팅 계획과 관련하여 "오는 12월까지 수동기능을 강화한 파인픽스 F11 '과' 파인픽스 Z1 '의 후속모델로 적외선 통신기능이 장착된 고화질 디지털카메라를 추가로 런칭하고, 조인성을 모델로 하여 TV, 지하철, 극장, 매체광고 등의 스타마케팅 및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전자양판점과 할인점, TV 홈쇼핑 및 인터넷, 일반카메라점 등 판매채널을 다양화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현재 테크노마트에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후지필름은 향후에는 용산, 남대문 등에도 직영점을 운영하며 브랜드 홍보 및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임을 밝혔다.